

김장겸 출석 특집

김장겸 12시간 조사...조만간 검찰 송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김장겸이 어제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했다. 이른 아침부터 6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방송의 날,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기자들의 술한 질문들에 입을 다문 채 종적을 감췄던 그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선 김장겸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냐”는 미리 준비한 듯한 말만 하고, 경호팀을 대동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다른 질문들엔 역시 답하지 않았다. 제 할 말만 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례적’이다. 영화 <공범자들>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였다. 상황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방증이다. 그는 지금 마음 다급한 ‘피의자’다.



2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김장겸의 전횡 기간은 본인이 주장하는 6개월이 아니라 최소 6년이다. 2011년 2월, 김장겸은 정치부장이 됐다. 이후 내곡동 사저 보도 누락, 한미 FTA 편파 보도 등 온갖 패악질을 저질렀다. 보도국장 때에는 보직 부장들에게 조합원 자격과 보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2017년 2월 28일, 김장겸이 사장으로 취임하던 날 MBC는 탄핵과 6월 항쟁 다큐를 불방시켰고 담당 PD를 유배시키거나 징계했다.

“주범이자 중범...법대로 처리하라”

김장겸의 출석을 상암동 MBC 사옥 1층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조합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인 수사만 늘어놓는 김장겸의 행태에 또 한 번 분노했다. 특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냐”고 질문하는 이동경 조합원을 사측 경호 인력이 몸으로 막아서고 거칠게 밀쳐내는 장면에선 씁쓸한 탄식까지 터졌다.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김연국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김장겸은 부당노동행위의 주범이자 중범”임을 분명히 하며, 법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2시간 조사...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전망

김장겸은 조사 12시간 만인 밤 10시를 넘겨 조사실을 나왔다. 최기화, 백종문 등 다른 공범자들보다 조사 시간이 두 배 길었다. 김장겸은 “6개월 된 사장으로서 성실히 답변했다”는 말 외엔 또 입을 닫고 기자들을 피해 자리를 뒀다. 서부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장겸은 물론 백종문과 최기화, 안광한 등은 모두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공범자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주요 혐의는 부당노동행위...징역형도 가능

피의자 김장겸의 주요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다. 노조 가입, 정당한 노조 업무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김재철도 깜짝 출석 신천교육대 “좋은 교육” 망발



김장겸이 출석했던 어제 노동부 서부지청엔 예상 밖의 인물이 깜짝 등장해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김재철이었다. 김재철은 서부지청 3층 조사실로 가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5층으로 잘못 올라가는 바람에, 5층 복도에서 ‘김장겸 뺨치기’ 하던 기자들에게 곧바로 발각됐다. 같은 날 김장겸과 동반 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다.

김재철 역시 파업 직후 상당수의 조합원들을 ‘신천 교육대’로 보내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길 잃은 미아처럼 청사를 헤매던 김재철은, 그를 알아본 <시사매거진 2580> 박종욱 조합원(기자)이 따라 붙자, 대뜸 ‘소속부터 밝히라’고 했다. 유배지를 떠돌았던 박 기자를 잘 모르는 듯한 눈치였다. 박 기자가 ‘MBC 소속’이라고 밝히자, 김재철은 생뚱맞게도 환한 표정을 지으며 반가워했다.

하지만 곧바로 박 기자의 송곳 질문들이 쏟아지자, 김재철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왜 직원들을 해고했냐’고 따져묻자, 김재철은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가 “임원들과 의논한 것이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재철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고통받는 후배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직원들을 좋은 교육에 보냈다”고 말했다. 기자, PD, 아나운서들을 신천 교육대에 몰아넣고 원하지도 않는 ‘바리스타 되기’ ‘맥주 만들기’를 시킨 게 ‘좋은 교육’이었다. 이어 ‘고통도 은총’이라거나, ‘MBC는 민영화돼야 한다’는 밀도 끝도 없는 말들만 남긴 채 청사를 떠났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날 서부지청에서 100명이 넘는 기자와 PD 등을 재교육 명목으로 ‘신천교육대’로 부당 전보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가 도와줄 일 없냐”

김장겸의 처량한 ‘셀프 구명’

궁지에 몰린 김장겸이 정치권을 향해 추악한 거래를 제안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장겸은 지난달 3일 “MBC가 도와줄 일 없냐”며 당대표 선거에 나선 안철수 대표와 접촉을 시도했다. 목적은 뻔하다. 방송을 통한 선거 지원을 미끼로 자신의 임기 보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려는 수작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상대가 안철수 후보라는 점에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희대의 편파 보도로 안철수 후보를 흠집 내려고 혈안이 됐던 당시 MBC 정치부장이 바로 김장겸이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등 다른 야권 인사들과도 ‘MBC의 도움’을 내세우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는 “내가 무너지면 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나를 지켜야 한다”며 구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방송 수장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저열한 정치꾼의 행각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종편채널 ‘TV조선’에 출연을 요청했다 ‘일방적 주장을 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보수 종편 채널조차도 김장겸을 외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수사 기관에 의해 그동안의 범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내부적으로도 보직자들의 보직 사퇴가 잇따르는 등 최후를 직감한 김장겸이 다급히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셀프 구명’에 나선 모양새가 처량하다.

한국당, 김장겸과 ‘한 몸’ 자인

안타까운 건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김장겸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물려갔고, 홍준표 대표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최교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장겸이 노동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흔드는 등 김장겸의 법률자문을 통해 ‘한 몸’임을 자인했다. 일개 방송사 사장의 거취 문제에 당의 운명까지 맡길 모양새다. 이제 김장겸을 두둔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한국당과 ‘구국채널’ ‘엄마부대’ 같은 이름의 극우 세력들 뿐이다.

전임 사장 안광한이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비선실세에 줄을 대려 한 것처럼 김장겸도 MBC 전파와 재산을 자신의 생명 연장에 악용하려 했지만, 이제 사면초가의 위태로운 신세만 확인됐다. MBC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정치권이 아니다. ‘셀프 구명’이 아닌 ‘셀프 퇴진’, 김장겸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MBC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다.

“별 볼일 없는 기자” 에서 “무소불위 실세” 로

- 증언과 사례로 본 김장겸 -

김장겸의 초년병 시절, 빠짐없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 같은 대학 같은 과(고려대 농경제학과) 선배였던 강성구 전 사장이다. 김장겸의 MBC 합격 발표일은 1987년 10월 26일, 당시 강성구는 보도이사였다. 입사 동기들은 김장겸이 입사 초기부터 강성구를 많이 따랐다고 전한다. “1991년 마산MBC 사장으로 임명된 강성구가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자 김장겸이 직접 고향인 마산에 내려가 구명운동까지 펼쳤다”는 증언도 있다. 이후 강성구는 MBC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리고 강 사장 시절, 김장겸은 동기들보다 빠른 시기에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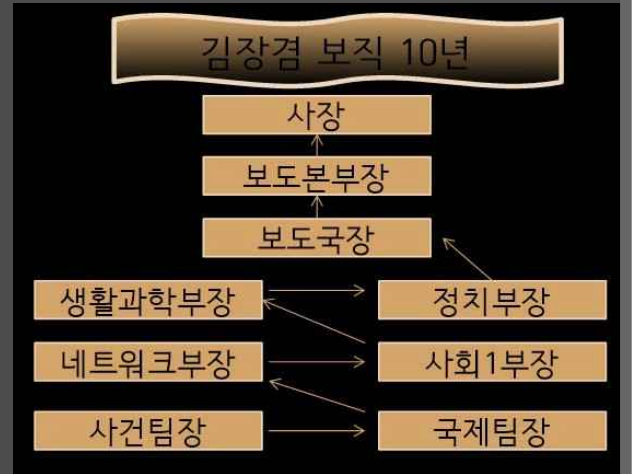
하지만 ‘기자’ 김장겸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김장겸은 ‘별 볼일 없는 기자’였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사망’ 대형 오보는 유명하다.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형제가 무섭다며 김장겸이 현장 취재를 후배에게 떠넘겼다”는 당시 시경 캡의 전언도 있다. 특파원 시절 교민 사회와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한 뒤 피해자에게 오히려 ‘MBC가 우습냐’고 협박한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무능과 불명예는 그가 보직을 얻은 뒤에 MBC뉴스의 보도참사로 이어졌다. 김장겸은 런던 특파원에서 귀임한 직후인 2008년 보도국 사건팀장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보도국장 자리를 거머쥐기까지 연이어 보직을 맡았다. 첫 보직인 사건팀장 시절부터 김장겸은 MBC보도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촛불집회 당시 전경이 여대생의 머리를 군함발로 밟는 영상이 화제가 됐을 때 김장겸은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영상 사용을 막았다고 한다. 당시 편집회의 한 참석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김장겸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무능과 편파를 넘나드는 김장겸의 보도 행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반복됐다. 관련 리포트를 대폭 늘리고자 했던 편집회의 분위기에 반해, 당시 네트워크 부장이었던 김장겸은 봉하마을 취재진의 보고를 묵살하고 리포트

수를 줄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내곡동 사저 매입 누락 축소’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왜곡 편파 보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공정보도 말살 행태들이 이어졌다.

당시 이명박 정권 주요 인사들 사이에선 김장겸이 우군처럼 거론됐다. 한나라당 대표가 MBC 정치부와 저녁 식사에서 “장겸이는 짝이 된다. 마산에서 출마할 만하다”며 치켜세울 정도였다.



정권 실세들과 가까웠던 김장겸을 견제할 간부는 없었다. 김장겸 정치부장 시절 편집회의에 참석했던 한 기자는 “보도국장조차 정치부장 눈을 마주보며 말을 하지 못 할 만큼 김장겸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기자는 “2012년 파업 이후 김장겸 정도로 편향적인 왜곡보도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장겸은 기자 초년병 시절부터 떠났던 대학 선배처럼, 결국 사장 자리까지 차지했다. 이제 그 선배의 최후까지도 닮아가는 양상이다. 강성구 전 사장은 1996년, 24일에 걸친 파업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이제 김장겸 차례다.

“한 달 2.2개 꼴..단독은 없었다”

- 리포트로 본 김장겸 -

보도부문 김재용 조합원이 ‘사상 최초’로 김장겸 사장의 기자 시절, 리포트들을 분석했다. 가히 논문 수준이다.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재용 조합원의 글을 간추려 핵심만 짚어보겠다.

김장겸이 현장 기자로 일한 기간은 20년. 이 기간 동안 뉴스데스크에 540개의 리포트를 했다. 1년에 27개, 월 평균 2.2개 꼴이다. 월간지 기자도 아니고, 이쯤 되면 회사 놀러다니 수준이다. 김장겸이 입사했던 1987년부터 리포트들을 검색할 수 있는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한 결과다.

보도국 기자들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김장겸 리포트를 분석한 김재용 기자는 입사 7년 만에 김장겸의 전체 리포트 수인 540개를 넘겼다고 한다. 월 평균 8.1개의 리포트를 한 결과다. 김재용 기자는 워낙 부지런했다고 치자. 2008년 7월부터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시작한 고은상 기자는 170일 파업 전인 2012년 1월까지 43개월간 326개의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했다. 월평균 7.6개다. 김재용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보도국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월평균 5.8개 정도의 리포트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리포트 압도적..그나마도 볼거리 위주



김 사장의 리포트를 유형별로도 분류해봤다. 국제 28.7%(155개), 국제-런던특파원 22.4%(121개), 사회 22%(119개), 정치16.5%(88개) 순이다. 국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내용을 보자. ‘미국 워싱턴 주택가에 야생 퓨마 등장’(97년 5월 4일), ‘중국 동물원 호랑이 새끼와 강아지 함께 키운다’(97년 5월 6일), ‘최고 애완동물의 조건은 순둥이?’(07년 3월 10일, 런던특파원) 등이 눈에 띈다.

소시지 빵과 멧돼지에 점령당한 최근 MBC뉴스의 예고편을 보는 듯하다. 김 기자의 분석에선 빠졌지만 ‘O형엔 고기 좋다’(97년 5월 22일)도 걸작(?)이니 못 봤다면 꼭 보시길..

20년간 단독 기사는? “딱히 없다”

기자의 능력을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특종이나 단독은 많이 했을까? 김재용 기자는 단독이라고 할 만한 기사가 ‘딱히 없다’고 분석했다. 이건 좀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MBC 기자는 대체로 1년에 한 두 개의 단독 기사는 쓰기 때문이다. 단독 기사를 쓰는 건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20년간 단독을 한 건도 못하는 건 쉽게 상상이 되질 않는 일이다. 김장겸이 뉴스데스크 톱 리포트를 한 건 모두 14번이지만 대부분 발생 스트레이트로 특별한 기획이나 단독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김장겸은 한때 뉴스데스크의 간판 코너였던 ‘카메라출동’에서도 근무했었다. 8개월 동안 총 8개의 리포트를 했다. 한 달에 한 개. 리포트 제목을 보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붕공사’(98년 7월 19일), ‘로열티 때문에 국내 화훼산업 큰 부담’(98년 8월 15일), ‘월드미스유니버시티 가짜 미인대회’(98년 9월 15일), ‘고흥 침수 피해 부른 간척지 부실 설계’(98년 10월 11일) 등이다. 당시 보도했다 하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다른 카메라출동 리포트들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로 ‘약하다’. 보통 리포트 한 개의 길이는 1분 20초로 인터뷰 포함 8~10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김장겸은 이마저도 귀찮은지 5개 문장에 50초 길이의 기사를 보내기 일쑤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는 분석을 마치고 김장겸을 눈에 띄지 않는, 후하게 봐줘야 평균 수준의 기자라고 평가했다. 정말 후한 평가다. 한 달 평균 리포트 개수 2.2개, 20년간 단독 기사 0, 이 분석 결과만 봐도, 그가 기자로선 어땠는지 안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기자가 특파원을 다녀오고 정치부장 등 여러 보직들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다는 건 무얼 의미하겠는가. 게으르고 무능한 자들은 대개 사내 정치에 열심이다. 김장겸은 사외 정치에도 열심이었다. 그가 사는 법이다.